

다양한 세션을 통해 세계 도서관을 배우다



임 여 옥

동대문도서관 사서
okrobo@hanmail.net

○ 8월 연수를 기다리던 설레임과 준비

연수 결정이 된 것이 4월이었다. 2010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를 신청하고 2주 정도 기다렸을까? 어느 월요일 아침에 과장께서 “들었어? 해외연수 가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아...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그리고 연수단으로 결정된 분들과 모임을 몇 차례 가졌고, 7월에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구체적인 일정이 담긴 책자와 여러 가지 주의 사항과 대회 기간 중 신경써야 할 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8월 7일 떠나기 바로 전날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퇴근해서 집안 일 챙기느라 10시 넘어서 짐을 싸다 보니 12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뭔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드디어 8월 8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늦을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7시 30분 공항에 도착해서 약속된 모임 장소로 갔다. 10시 30분경 비행기가 출발 예정이었으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1시간 가까이 지체하고 있다가 11시가 넘어서 출발했다. 비행편은 편에어였다. 기내에서는 제공해 주는 식사를 하고 새로 나온 영화도 보았다. 그동안은 도서관 업무를 밀리지 않게 하고 집안 일도 챙기고 또 틈 날 때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발표될 논문들을 IFLA홈페이지(<http://www.ifla.org>)에서 다운받아서 읽어 보느라 분주하게 보냈다.



9시간 정도의 비행을 하고 나서 헬싱키에 도착했다고 했다. 환승 시간이 여유가 있어 휴식을 취하고 다른 비행편으로 예테보리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을 하고 다음 일정을 준비하며 잠 들었다.

○ 스웨덴 도서관과 만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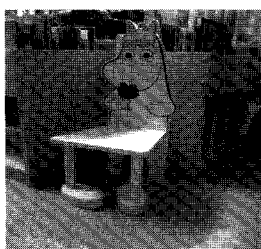
[볼레뷔그즈공공도서관과 볼레뷔그즈학교도서관]

8월 9일 예테보리에 와서 첫날,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방문에 나섰다. 참가단은 볼레뷔그즈공공도서관(Bollebygd Public Library)으로 갔다. 1970년 경 개인 집을 기증받아 도서관으로 운영하다가 1995년 집 옆 오른쪽에 새 건물을 지었다. 우리가 안내된 곳은 새 건물이었다. 안내해준 사서는 애니타 헤이든(Anita Heden)씨였고, 1층에 어린이도서, 소설류, 미소설류로 배열이 되어 있으며 장서는 약 3만권이라고 했다. 거의 새 책으로 보여 질문을 하였더니, 책의 순환(circulation) 주기는 대략 2년이라고 했다. 오래된 책은 판매를 하고 수익금은 도서관 재원으로 사용하며 이는 재정의 약 10%정도를 차지한다고 했다. 특이한 서가에 '7-dagarslam' 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신간은 대출기간이 7일이라고 했다. 대출도 서 권수에 제한이 없고 대출도서가 연체되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봉사 대상 인구는 약 8천명이고 1일 평균 200명의 이용자가 도서관에 온다고 한다. 학교도서관과는 어떻게 협력하느냐고 물었더니, 자료를 공유하는데 DB를 통해 검색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협력 프로그램은 1주에 한 번 동화 이야기 시간, 노래 함께하기 등이 있다고 했다.

마침 서가를 둘러 보다가 책을 보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 가족은 스톡홀름에 살고 있으며 이 곳에는 부모님을 방문하러 왔다가 도서관에 들렀다고 했다. 1년 중 몇 권의 책을 읽느냐고 했더니 12-13권을 읽는다고 했다. 스웨덴의 다른 성인은 그 보다 더 많이 읽거나 조금 덜 읽는다고 덧붙였다. 도서관의 좋은 점은 질 높은 영화를 마음대로 빌려 볼 수 있어서 좋고, 원하는 책이 그 도서관에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 검색해서 신청하면 이용자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볼레뷔그즈학교도서관(Bollebygd School Library)으로 갔다. 유치원에서 9학년(중 3, 스웨덴에서 의무교육 기간임)까지의 학생 650명과 교직원 45명이 생활하는 학교의 도서관을 견학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내 해 준 사서는 공공도서관에서 파견되었다고 했다.

학교는 1970년대 말에 설립되었고 도서관에서는 7-9권 정도 대출해 가며 특히 3-4학년부터 시작하는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책(영어는 필수이며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는 선택언어임)을 비치하고 있으며 기록역사 자료, 교육학 자료도 비치하고 있다. 이 도서관을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느냐고 물었더니,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이 갈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을 개방한다고 한다.



▲블레비그즈공공도서관

▲블레비그즈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서는 공공도서관에 고용되어 있고 공무원이며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이라고 했다. 스웨덴의 사서교육은 대학에서 5년 과정(보통 3년인데 대학원까지 5년임)을 수료하고 학교도서관 등 특정 구역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미리 자료를 찾아보아서 필자가 알고 있듯이 스웨덴의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보다 나은 수준이며 공공도서관은 일반인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이용하는 도서관인 반면, 학교도서관은 아이들이 책을 읽도록 지도하는 도서관이란 점이 다르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만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한다고 한다.

[에수나도서관과 스카라도서관]

• 에수나도서관



▲에수나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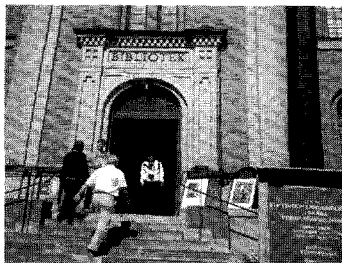
8월 10일에는 IFLA에서 주관한 방문도서관의 날로 필자가 선택한 방문도서관인 에수나도서관(Essunga Library) 방문에 나섰다. 우리를 안내한 사서는 72세의 버트(Burt)라는 할아버지로 51년 전에 노세브로 지역 도서관에 근무하였다고 했다. 예테보리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버스로 이동하였다. 도서관 앞에 나와 있던 안내자는 리그모 피어슨(Rigmor Persson) 사서로 명함에는 도서관문화팀장(Head of Library and Culture)으로 쓰여 있었다. 설명에 의하면 리그모 사서는 2006년부터 이곳에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사서이자 교사이며 노세브로지역 도서관문화 책임자라고 하였다. 에수나도서관에는 4명의 사서가 근무하고 있고 일반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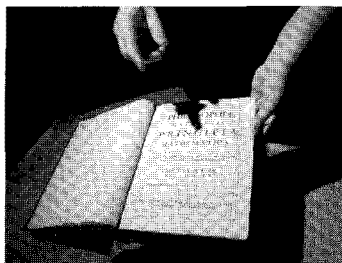
과 12세에서 16세의 학생 300명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했다. 이 도서관은 1963년에 설립되었고, 2000년 경에 재개관했다고 한다. 보통 9개월부터 5세까지는 건강관리센터(Health Care Center)를 이용하고 6세가 되면 도서관 카드를 만들고 책을 빌려가기 시작한다고 했다.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은 건강관리센터(아침 7시~밤 10시)를 이용한다고 했다.

도서관은 학생들에게는 주로 책을 즐겁게 읽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일반인들의 모임 장소, 책 읽기와 인터넷 이용을 위한 장소로 문화적인 공간으로 이용된다고 했다. 실제로 이 지역의 클럽은 약 100여개 정도(영화, 예술, 문학, 스웨덴 역사 탐구 등)였으며, 회합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학교 문을 열면 바로 도서관이어서 학생들은 시간이 날 때면 언제든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교실에 컴퓨터가 있어서, 주로 과제물을 위해 책을 빌리고 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산은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며 학교위원회가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에 주로 관여한다고 했다. 최근에 팔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1년 동안 한 반 학생이 책 1,000권을 읽으면 새 책을 한 권씩 받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스카라도서관



▲스카라도서관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

노세브로 지역 도서관을 떠나 스카라 지역으로 약 30분간 이동하였다. 스탄(Stan) 사서와 힐리야나(Hilliana) 사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12시가 넘어서 점심 식사를 했다. 스탄 사서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회에 오기 전 서울에서 방문 도서관에 대해 자료를 보던 중 이 도서관에는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보관 중이란다며 정말이냐고 물었다. 실제로 그렇다고 했다.

왼쪽 새로 지은 도서관(new library)은 1987년에 설립되었고, 오른쪽은 옛도서관(old library)으로 1858년에 세워졌다고 했다. 옛도서관의 장서는 1746년 교회와 학교에 소장하였던 도서를 옮겨와 만들 것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라고 했다. 옛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책을 보여 주었다. 라틴어로 필사한 도서는 어디에서(노르웨이인지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알지 못함)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12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책으로 성직자들의 교회 의식(언제 말하고 언제 노래하는지 등)에 대해 쓰여 있으며 총 600면 중 약 88면이 남아 있고 44면은 지역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곳 옛도



서관에 남아 있다고 했다. 1528년에 스웨덴 왕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로마가톨릭에 등을 돌렸으나 이 책은 양피지(parchment)로 만들어진 귀중본이라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 왔다고 한다. 이 곳 1층에는 주로 1800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종교, 과학, 여행 관련도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귀중본은 지하에, 어린이도서관은 새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자료실을 둘러 보던 중 한 역사학자를 만났는데, 그는 중세 스카라 지역 사람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연구서 두 권을 출간하였고 3권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도서관은 주로 일반인보다는 역사가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했다. 특이할 만한 내용은 족보(Genealogy)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도서관에서는 1688년 이후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모두 모여 있어, 최근 사람들은 PC로 검색하여서 볼 수 있고 오래된 사람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전세계에서 족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나의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귀중본이 보관되어 있다는 지하로 내려갔다. 오래된 책에서 나는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 어떻게 보존하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건물 밖에 기계장치가 되어 있고 건물 내에서 공기를 순환시켜서 잘 유지되며 컴퓨터가 이를 감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합천 해인사의 대장경관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관각의 건물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이 뇌리를 스쳐갔다.

지하에서는 힐리아나 사서가 설명을 해 주었다. 가족성경(Family's Bible), 프린키피아(Principia), 크리스티나 여왕의 문장(Queen Christina's Seal)을 보여 주었다. 아이작 뉴턴의 저작 프린키피아는 1686년 7월 5일에 출판되었음이 표시되어 있었고 18세기에 누군가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라고 했다. 1647년에 만들어진 'Heveliz Selenographia'의 달 그림도 보여 주었는데,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림이었다. 크리스티나 여왕의 문장은 크리스티나 여왕이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공을 치하하고 귀족으로 임명하였고 세금도 감해 주었는데, 그 후손이 자식이 없어서 18세기에 도서관에 기증을 했다고 했다.

● 다양한 세션 참가

[정보리터러시 분과]

필자는 미리 준비해 간 자료를 보면서 관심있는 세션을 중심으로 참가하였다. 'Information Literacy with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세션에 참여하였다. 'Don't wait to be asked - towards the next generation reference and information literacy'란 주제의 와이오밍대학교 사서의 발표는 인상적이었다. 전통적인 1회성 도서관 교육 및 데스크중심 참고봉사의 개념을 넘어서서 커리큘럼과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된 임베디드 참고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진정한 임베드 정보리터러시(embed information literacy)교육과 대학의 교수·학습의 모든 수준에서의 임베디드 사서



(embed librarian)라고 한다. 발표 제목에서 보듯이 이용자가 질문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행태를 연구하고 그들이 이용하는 대학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 (이메일, 즉답형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 전화 참고봉사 등)을 활용할 뿐 만 아니라 임베디드 참고봉사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와이오밍대학교도서관에서의 온라인 참고봉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개선 작업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Proof of Concept: The Fatal First Click How do we hook them once we've got them to look?', 에바인 도서관(Irvine Libraries) 사례였다. 이 발표에서는 이미 일반화 된 도서관 웹사이트 서비스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정보 요구에 응하기 위한 서비스와 자원을 알려주고 유인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도서관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이용자의 움직임 추적하여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를 만들거나 그 사이트가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지를 크게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 질문을 하여 데이터를 모아 피드백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대도시 도서관, 공공도서관 분과]

'Unleashing the power of the industrial age of QUEST: two innovative projects to reap the rewards of reading' 는 싱가포르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사례였다. 그들의 퀘스트 프로그램은 '비주얼한 퀘스트', '소년들을 위한 퀘스트', 'Read and Reap' 이란 말로 요약이 된다. 최근의 독서 취약계층이 7세에서 12세의 소년들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싱가포르에서 '퀘스트'는 소년들이 갖고 노는 트레이딩 카드(trading card)의 포맷을 이용하여 한쪽에는 만화스타일의 그림을 다른 한 쪽에는 스토리를 써서 읽기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Read and Reap' 은 책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블로그에 독후감을 올리거나, 오프라인에서 포스터를 그린다거나 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학교도서관·정보기술 분과]

'Strongest together: One child - two libraries...because less won't do! New forms of cooperation between school library and public library' 라는 발표에서 덴마크 콜딩공공도서관과 콜딩시의 학교도서관들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으로 지방자치제에서의 이동들에게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덴마크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지역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서비스 개선, 자원 활용의 개선을 위한 협력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Kirsten Boelt, 알보그공공도서관)로 2009년 덴마크에서 4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회들 간의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이동들을 위한 미래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보고(문화부 소속의 위원회에 의해 작성됨)로부터 고안되었다.



[도서관 건축·시설 분과]

‘Southwark’ s stunning exemplar’ library: Modest investment for maximum effect’ 라는 주제 발표는 영국사우스워크(Southwark)지역의 존하버드도서관(John Harvard Library JHL)의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들, 헬스케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관리위원회(Project Management Board)를 운영했다는 점과 개관 6개월 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한 도서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들도 설립 된지 오래된 도서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이번 세션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 WLIC 참가 시 꼭 챙겨야 할 필수품, IFLA 소식지(IFLA Express)

대회를 왔다갔다 하며 개회식 전후로 발행되는 IFLA 소식지 1호를 찾았다. 다른 언어별 소식지는 있었으나 영문판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 되어 안내자가 자신이 보려고 챙겨 두었던 것을 주며 보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 개회식 소식이 주된 내용이었다. 8월 14일에 발행된 4호는 영문판을 챙길 수 있어서 자세히 읽어볼 수 있었다.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께서 IFLA 소식지를 꼭 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챙겨 보았는데, 대회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였다. 소식지의 안내를 보고 IFLA 사무국 부스에 가서 명함을 넣고 다음 대회 무료참가권 당첨을 기대했다.

○ 다시 이번 연수를 돌아보며

이번연수를 돌아보며 느낀 점이 많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2010 예테보리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참석하며 생각했던 점은, 1)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고, 장애인서비스와 다문화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이 컸다. 2)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리터러시 서비스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웹페이지 참고봉사 부분에서 미모의 안내자 사진(우리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서의 이미지가 아닌)은 얼마나 사서들이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애쓰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3)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례에서 영상매체와 게임에 쉽게 빠져들고 책을 읽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4) 외국의 도서관은 보다 아름답고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도서관 건축과 인테리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스웨덴 도서관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점은, 1) 자료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래된 자료는 판매하여 도서관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신간을 많이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신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2)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어렵지 않게 무료로 구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었



다. 3) 도서관 건물도 오래된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예전 건물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새 건물을 짓는다(도서관 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였다). 4) 아동서, 성인서를 한 공간에 구분하여 배열하고 있었다. 예테보리시립도서관 사서에게 질문을 하였더니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한다. 그냥 스웨덴공공도서관의 최근 방식으로 보였다. 5)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은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 단,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의 부족한 점(장서나 사서교사 등)을 공공도서관에서 협력하고 있었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며 학교위원회(School Board)의 결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소중한 경험을 가슴에 품고 돌아와 현장에서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애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이번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자들은 2010년 가을이 더욱 풍성했으리라고 생각한다. 